

# 유비쿼터스의 기독교적 의미와 크리스천의 사명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사)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공동대표  
(daniel@hansei.ac.kr)

미국의 부통령이자 정보화고속도로의 주창자였던 알고어는 지난해 서울디지털포럼 주제 강연에서 전 세계가 한국에 감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개발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쇄술로 직지심경이 1234년에 편찬되었고 이런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영향을 주어 서양에서 금속활자가 개발되어 성경이 인쇄되고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하였다. 현재 한국의 유비쿼터스 기술과 사례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어 한국이 유비쿼터스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에 또 한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 유비쿼터스 구현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원래 라틴어로 “하나님(신)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과학기술에 적용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형의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매장되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뜻하게 되었다. 신학적인 명제가 이제는 첨단 과학과 미디어의 용어로 전이된 것이다. 컴퓨터의 기술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복잡한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모든 제품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컴퓨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활 속의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invisible computing), ‘끊김 없는 컴퓨팅’(seamless computing) 등으로 불린다. 미래 사회는 모든 제품에 컴퓨터 칩이 장착되어 있어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게 될 것이다. 입는 컴퓨터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만능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의 시청뿐만 아니라 가사와 제품의 구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유비쿼터스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인간이 발견하고 이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3D 즉 Digital, DNA, Design으로 구현된다. 디지털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기술은 두 가지이다. 전자기술(IT)과 나노기술(NT)이다. DNA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기술은 두 가지이다. 생명공학(BT)과 환경공학(ET)이다.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기술은 두 가지이다. 문화개발기술(CT)과 우주공학(ST)이다. 이 여섯 가지 기술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의 근간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 여섯 가지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러

한 3D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Digital)으로 세상을 만들고 생물을 변성케(DNA)하셨으며 모든 것을 보기에 아름답게 설계(Design)하신 것과 같은 원리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Digital)으로 오셔서 생명(DNA)을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Design)하여 주셨다.

##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디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한명 한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된다. 특히 미디어가 확장되고 생활 속 곳곳에 침투하게 되며 개인도 콘텐츠를 생산케 되어 개인이 미디어에서 어떤 콘텐츠를 즐기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콘텐츠를 올리는지가 바로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모바일의 위력을 경험했고, DMB, 디지털방송, IPTV, 텔레매틱스, 디지털시네마 등 다양하고 생활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문화콘텐츠를 즐기고 또한 자신의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성희 목사님(2006)에 의하면 콘텐츠의 전달 방식이 구약시대에는 듣는 미디어에서 신약시대에는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하는 토탈 멀티미디어로 변화하였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음성으로만 전달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도 음성에 제한되었다. 하나님이 아담이나 가인을 찾으실 때도 음성만 나타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실 때도 음성으로 만나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다(출 10:28).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소리”에 불과하였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계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다(막 1:3 등).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토탈 미디어로 오신 미디어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음성으로만 듣고 머리로 생각하던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한 상황의 전환이었다. 실증적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 14:8)라고 한 말은 구약적 미디어에서 신약적 미디어로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고 더구나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자체가 독신(瀆神)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고 하셨다. 죽이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 오신 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또 다른 실증적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만지고,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고라는 인식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이에 도마를 만난 주님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요 20:27)고 하셨다. 도마에게 주님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청각, 시각, 촉각을 통한 토탈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나주신 것이다.

이제는 음성으로 듣는 단순 미디어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감각으로 느끼게 하는 토탈 미디어이며 멀티미디어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듣고, 보고, 만지고, 인간과 똑같은 감각으로 오신 하나님을 다각적인 전달을 통하여 인간과 새로운 교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가능한 전달의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에게 오신 멀티미디어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도 단순한 청각 미디어에서 총체적인 멀티미디어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유비쿼터스시대 크리스천의 사명

필자는 유비쿼터스를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초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유비쿼터스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사례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만약 유비쿼터스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콘텐츠가 기독교적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담고 있게 된다면 이는 국내에서 문화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례와 문화콘텐츠는 전 세계의 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들은 유비쿼터스를 기독교문화로 선점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연합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유비쿼터스를 통한 기독교문화의 확산이라는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리스천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하나님의 문화 침병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사탄과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비쿼터스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크리스천은 다 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크리스천은 항상 깨어 악한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여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가 악한 영에 악용되어 퇴폐, 음란, 폭력, 도

박, 사기, 혐기의 온상이 되어 이로 인한 악한 문화의 확산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펼쳐지고 개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이웃의 삶과 문화행동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크리스천은 항상 깨어 악한 문화는 보지도 않도록 하고 더욱이 악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문화 예를 들면 사랑, 회복, 화해, 반성, 경외, 봉사 등의 사회문화적으로 유익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콘텐츠를 적극 이용하거나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전파시키는데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노력이 확산되면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건전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좋은 문화가 세상에 넘쳐나게 되고 이로 인해 현재 범람하는 악한 문화가 점차 위력이 떨어지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둘째,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허락하셨다. 양팔과 두다리가 없이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나 손가락 4개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등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개발하여 활용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달란트를 하나님 관점에서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현재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악하고 미혹하는 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악한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크리스천과 교회가 일어서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각기 주어진 상황과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적극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좋은 콘텐츠, 감동적인 콘텐츠,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적극 만들고 이를 적극 이용하며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실현되고 기독교적 가치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사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구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우리가 가슴에 항상 품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우리 크리스천

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 이웃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담같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